



김민석 국무총리,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 엄단 지시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일(목), 최근 중동전쟁 관련 국내외 언론,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가짜뉴스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지시했다.
 - 현재 중동전쟁에 대해 '유가 폭등설'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(짜라시)가 유포되고 있는 바,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.
 - 또한, 재정경제부, 외교부, 산업통상부, 보건복지부,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중동전쟁에 따른 현재 국내 시장상황과 에너지, 주요 민생물품 등의 수급, 가격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, “셋다운, 대란, 품귀”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뉴스에 대해 사실관계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것.
- 이 외에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(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), 경찰청(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), 문화체육관광부 (가짜뉴스 근절 홍보 강화) 등 관계부처도 대응을 철저히 할 것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 박재홍 (044-200-2182)
		담당자	서기관 배유진 (044-200-2180)